

인쇄단체 · 기관뉴스

1 동성

- ▶ 배동석 광성기획인쇄 대표가 최근 열린 남인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 ▶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과 교수는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저작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 ▶ 최태경 전자출판협회 회장은 3월 4일 오후 2시부터 파주출판도시 내에 위치한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세미나실에서 인디자인을 활용한 전자책 기획 및 출간에 대한 세미나를 갖는다.

2 부음

- ▶ 손안구 태양상상 사장의 빙모가 지난 2월 19일 별세했다.
- ▶ 구재만 휘문인쇄사 사장의 모친이 지난 2월 9일 별세했다.
- ▶ 지규훈 (주)선명제본 사장의 모친이 지난 1월 18일 별세했다.
- ▶ 심정희 협진인쇄사 사장의 모친이 지난 1월 19일 별세했다.
- ▶ 송국자 광명비치네스 사장의 부군이 지난 2월 2일 별세했다.

3 화족

- ▶ 박명숙 룬커뮤니케이션 사장의 차녀 미옥 양이 지난 1월 30일 라마다서울호텔에서 화족을 밝혔다.

4 이전

- ▶ 아그파코리아(대표 권순기)는 지난 2월 27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새로 이전한 곳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번지에 위치한 단암 빌딩 6층이며 이전 후에도 전화, 팩스 등의 번호는 바뀌지 않는다. 문의는 02-2262-4231로 하면 된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이사회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2월 5일 오전 11시 호텔 PJ에서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상정의안들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홍우동 회장은 의안심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 협회는 지난해에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올해에는 내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업계 공동발전을 위한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요즘 날씨가 춥고 경기가 침체되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쇄문화산업과 협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 잉여금 처분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 의안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중구 필동지역 인쇄공장 건축 제한

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최근 필동지역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인쇄공장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건축위원회 심의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건축물 층고를 대형인쇄기기 설치가 어려운 3.5m이하로 건축하도록 권고해 근본적으로 제조업 진입을 막도록 했다.

또 연면적 500㎡ 이상 규모의 인쇄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년에 2회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공장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필동지역은 도시계획상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건축법상 연면적 500㎡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는 500㎡ 이상 49개 동, 500㎡ 이하 39개 동 등 88개 동이 공장장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유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

사전예방차원으로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용도변경 허가신청이나 신고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조건을 강화하고 남산르네상스와 연결, 옥상과 벽면녹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건축물 층고를 대형인쇄기기 설

치가 어려운 3.5m 이하로 건축하도록 권고해 근본적으로 제조업 진입을 막도록 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통해 대형인쇄기기가 들어올 수 없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했다”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예전의 필동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쇄학회,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회

한국인쇄학회(회장 구철회)는 지난 1월 2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림정에서 인쇄학회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박찬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규남 전 임회장과 구철회 신임회장의 인사와 이사회 임원 변경 건, 2009년도 결산보고,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학술후보지 등재 후보지 선정, JAGAT 번역 책자 발간 사업보고, 2010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일정 및 장소선정,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구철회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규남 전임회장의 노력과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 가능했다”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는 오는 5월 1일~2일 양일간 부산시 소재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계연-러시아 인쇄대학, 인쇄전자 공동연구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이상천)은 지난 2월 16일 알렉산더 짜가넨코 러시아 국립인쇄대학교 총장(Tyganenko, A.M)이 연구소를 방문, 인쇄전자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짜가넨코 총장은 기계연 인쇄전자시설을 견학한 뒤 기계연의 우수한 인쇄전자기술에 감탄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계연 나노 프린팅 분야의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상천 원장은 “세계적으로 인쇄전자 분야를 리드하는 모스크바 국립인쇄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국립인쇄대학교에 글로벌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짜가넨코 총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인쇄대학교와 인쇄전자 분야의 기계연 인쇄전자 분야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협력의 일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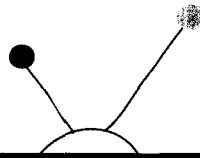


4 이전

- ▶ 한맥금박(대표 김진영)은 최근 상호를 한맥특수인쇄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서울 중구 필동3가 39-3 정문빌딩으로 이전했다.
- ▶ 상진문화인쇄사(대표 김상진)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가 39로 이전했다.
- ▶ 동양정보문화사(대표 황기철)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92-20으로 이전했다.
- ▶ (주)명보정판(대표이사 이용관)은 최근 상호를 (주)명보프린트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7-28로 이전했다.
- ▶ 한솔기화(대표 윤인숙)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필동1가 11-1로 이전했다.

5 변경

- ▶ 케이에프앤씨(주) 대표이사에 최근 조좌영 씨가 취임했다.
- ▶ (주)서광프린테크 대표이사에 최근 김태수 씨가 취임했다.
- ▶ (주)진피플(대표이사 한동훈)은 최근 상호를 (주)우진테크로 변경했다.
- ▶ 대양인쇄사(대표 양기성)는 최근 상호를 (주)대양티피에스로 변경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3월 20일까지 휴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전시실 내부 개편 공사를 위해 3월 20일까지 휴관한다. 지난 1992년 개관한 고인쇄박물관은 지난 2000년 증축 재개관 이후 내부 조명 및 시설, 인테리어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물관 측은 5개 상설 전시실 내부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고인쇄 문화 관련 설명 및 각종 사진 패널을 교체하고 직지 유공자 박병선실을 대폭 확장, 박 박사의 공적을 기릴 방침이다.

청주시-뱅크, '직지' 오류 수정 성과

청주시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뱅크'의 노력으로 직지 on-off line 오류 수정이 성과를 거뒀다. 시는 최근 영국 국립중앙 도서관 사이트, 호주 머큐리 인쇄박물관으로부터 인쇄술 발명 관련 내용을 시정하겠다는 서한을 받았고, 영국 국립도서관의 경우 현재 시정된 내용이 웹사이트에 반영됐다고 최근 밝혔다. 영국 국립도서관 사이트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켜 사용한 증거인 직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뱅크는 청주 고인쇄박물관과 함께 직지 소개 자료가 실린 웹사이트 주소 등과 함께 시정 서한을 작성해서 보냈다. 그 결과 ~ 13세기 초에 금속활자인쇄술이 처음으로 발견된 곳은 한국이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증거는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1377년에 적힌 불교서적이다. ~ 중략 이라고 시정한 내용을 확인했다.

독립기념관에 직지홍보관 설치

충북 청주시가 충남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직지심체요절' 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

독립기념관 요청에 따라 오는 5월 5일 개관하는 직지 홍보관은 '직지(영인본)' 하권 2책과 한국이 1230년대 금속활자를 사용한 사실을 기록한 '동국이상국집' (영인본) 1책, 직지 금속활자 주조 과정(밀랍주조법) 1조를 전시할 계획이다. 직지관이 설치되는 제1관인 '겨레의 뿌리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난극복의 역사를 다룬다. 직지 홍보관 설치에 청주국제공항과 국립서울과학관에 이어 세 번째다.

시 관계자는 "독립기념관 내 직지관 상설 설치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직지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독립기념관과 협의해 '직지금속활자판(복원)' 등 추가 자료가 직지관에 전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직지문화협회 정기총회

세계직지문화협회 정기총회가 지난 1월 26일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이상훈 지역부회장(충북지역개발회장)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계직지문화협회는 이날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6800만원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 지원 2650만원 △직지 찾기·홍보 사업 700만원 △직지 특별강연회 300만원 △협회 사무국 운영 6700만원 등 모두 6억9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승인했다.

서울조합 사업·재정분과위원회 개최

서울인쇄정보조합 사업 및 재정분과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일 조합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터넷쇼핑몰사업(B2B전자상거래) △지도교육정보사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수출진흥사업 △홍보사업 등을 비롯하여 2010년 수지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기능인력 양성사업 중 서울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사업은 당초 서울시에서 모든 인력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청년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참여기업 및 지원자를 모집·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에서 모든 업종과 함께 모집 공고시에는 인쇄업종에 대한 특성과 인식부족으로 참여기업과 참여자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서울시에 각종 자료를 첨부, 건의하고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인쇄업만 조합에 10억원을 별도로 배정기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터넷쇼핑몰 사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점 업체 수수료 0.4%를 없애으로써 생산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거래품목을 다양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인쇄대상 출품작 7월 30일까지 접수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인쇄기술의 향상을 유도하고 고품질 인쇄물 생산을 촉진하여 국내 인쇄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에 출품할 우수 인쇄물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책자인쇄물(일반서적, 잡지, 연감·백과사전, 박엽지인쇄, 기타인쇄물) △상업인쇄물(리플렛·카탈로그·브로슈어, 캘린더, 우편엽서·청첩장·카드, 포스터) △생활인쇄물(전표 등 서식류·통장·전산품 등사무용 인쇄물, 라벨 및 스티커 인쇄물, 포장 인쇄물, 특수인쇄물, 기타 생활인쇄물)이다. 서울인쇄대상 작품은 오는 7월 30일(금)까지 접수받으며, 작품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출품신청서 1부(www.seoul printing.com에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등이며, 시상은 9월 14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문의 : 2278-3081>

서울인쇄센터, 이사회 개최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지난 1월 21일 인쇄정보센터 7층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조정석 이사장은 "서울시와 동국대RIS사업단의 지원으로 인쇄물 수출지원 사업, 인력양성사업, 제4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개최 등 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다"며 "특히 올해는 고가의 CTP 장비를 도입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이용장비 운용사업과 해외인증 기반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인쇄센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공동이용장비 운용사업은 급변하는 인쇄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센터 내에 구축,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인쇄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해외인증 기반사업은 국제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내 인쇄업체들이 국제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감사인 이재환 태양씨엔피 대표와 한용근 금영문화사 대표가 유임됐으며, 김남수(청아문화사 대표) 수출진흥협의회 회장이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서울인쇄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인쇄센터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용식)는 지난 2월 3일 인쇄정보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고가의 CTP 장비를 도입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이용장비 운용사업과 해외인증기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제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용식 위원장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 인쇄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 추진 방안,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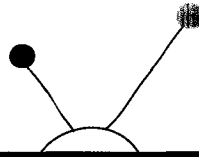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성도GL/성도솔루션, 백두대간 종주 선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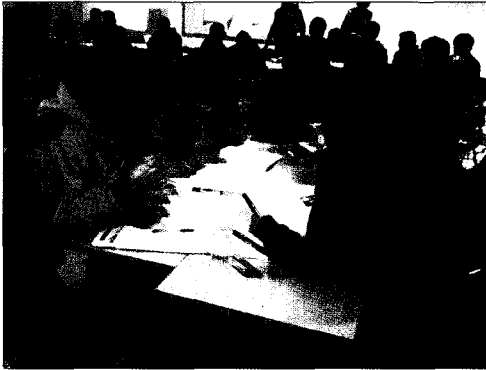


(주)성도GL/(주)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1월 29일~30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리산 천왕봉을 등정하여 백두대간을 종주하겠다는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지칭하며 한반도의 주요한 산세를 모두 끼고 있는 등정 코스이다.

성도GL/성도솔루션은 이번 지리산 등정은 백두대간 등정 중 첫 번째 구간으로 심신을 단련하여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여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그파코리아, 2010 킥-오프 미팅



아그파
코리아(주)
(대표이사
권순기)는
지난 2월 5
일 서울 효
창동 백범
김구기념
관에서 입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을 결산하고 2010년의 경영 전략을 발표하는 '2010 킥오프미팅 및 Value for AGFA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신년 경영 전략 및 전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권순기 대표는 "2010년 올 한해도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들 하지만 '위기'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위태로운 상황과 기회 모두를 포함한 뜻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후에는 인사부 배선희 이사의 'Value for AGFA'라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 전 직원이 공동체로 문제 해결을 해 보고 응용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그파, 쉐젠 브라더스사와 합작회사 설립

아그파 그래픽스와 쉐젠 브라더스사는 중국과 대만, 아세안 지역에서의 사업 활동을 포괄하는 합작회사 설립 계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쉐젠 브라더스사는 2000년부터 아그파 그래픽스의 그래픽 필름의 마스터 롤을 수입하여 완성품 제조 및 유통 활동을 해왔으며, 그 동안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 내 인쇄시장에서 성공적인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최근 아그파 그래픽스는 디지털 프리프레스와 신규 산업용 잉크젯 인쇄기술 분야에 중요한 투자를 해왔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의 광범위하고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그파 그래픽스는 중국, 홍콩, 대만, 아세안 지역에 자사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우시에 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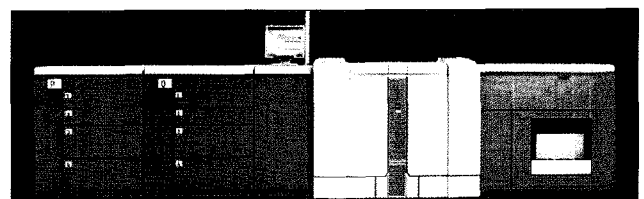
인쇄용 판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그파 그래픽스 아시아'라고 명명된 합작회사는 아그파와 쉐젠 브라더스의 기반 시설, 기술, 제조, 판매망의 강점들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며, 또한 아그파 그래픽스의 세계 최고의 기술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분은 아그파 그래픽스가 51%을, 쉐젠 브라더스사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사업 첫 해에 2억 유로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합작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스테판반후렌 현 아그파그래픽스의 본사 사장이, 최고 경영자는 쉐젠 브라더스의 최고 경영자인 Mr. 황이 될 것이다.

아그파 그래픽스 본사 사장인 스테판 반후렌은 "아그파 그래픽스와 쉐젠 브라더스는 지난 10년 동안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충성스러운 파트너로써 중국의 그래픽스 산업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 이 합작 투자는 아시아에서 디지털 프리프레스 산업과 산업용 잉크젯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야심찬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 쉐젠 브라더스의 높은 지명도와 현지 고객, 공급자 및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수익성 있는 강력한 시장 지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밝혔다. 쉐젠 브라더스의 최고 경영자인 위진 황은 "미래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혁신과 비용 리더십이 중요한데, 아그파 그래픽스의 뛰어난 기술적 지위와 노하우는 중국, 홍콩, 대만 및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효율성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아그파 그래픽스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제조 능력과 기반 시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소감을 발표했다.

쉐젠(광둥)에 본사를 둔 신설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받아 늦어도 2010년 3/4분기부터 운영이 될 예정이다.

오세 디지털인쇄기 및 솔루션 설명회



대신정보통신(대표 이재원)은 오는 3월 9일 호텔 PJ 4층 카라디움 홀에서 오세 디지털인쇄기 및 솔루션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시연될 디지털인쇄기는 모델명 Oce VP6250이며 행사 후에는 경품 추첨 및 사은품 증정이 있을 예정이다.

VP6250은 Instant Duplex 방식으로 양면을 동시에 인쇄하며 매우 섬세하고 깨끗한 출력으로 오프셋과 유사한 출력품질을 자랑한다. 매우 짧은 종이의 이송경로와 직접 종이이송방식 등으로 인쇄 중단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VP-6250은 양면을 동시에 인쇄하는 경쟁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45% 이하의 낮은 전력 소모를 실현하고 있다. 대신정보통신은 오세의 모든 장비는 유럽 기준의 RoHS를 준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기준에 맞춰 사용자들의 친환경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HP, 통합출력 관리 서비스 시장 선두업체 선정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2월 8일 HP가 세계적인 시장 분석 기관인 IDC가 선정한 '통합 출력 관리 서비스 (이하 MPS)' 분야의 최우수 리더 기업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MPS솔루션'은 기업의 출력과 관련된 모든 사무환경을 아웃소싱하는 서비스로 프린터, 복합기 등 기업의 모든 출력기기를 통합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프린팅 솔루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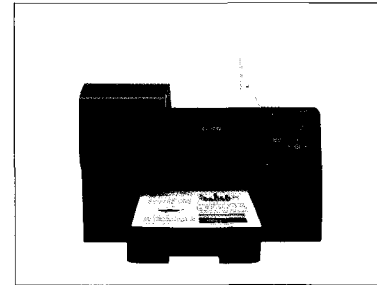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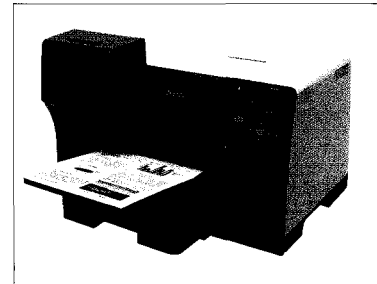
따라서 MPS는 고객들에게 출력 관리 간소화, 비용 최소화, 출력 성과 극대화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은 HP 솔루션을 통해 하드웨어, 전산용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더불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이미지 및 출력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IDC가 발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HP는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 중 MPS서비스 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기업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HP의 시장 성공은 고객들의 '출력 비용 절감'과 '생산성 강화' 및 '기업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확산하는데 HP의 MPS솔루션이 필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왔기 때문이다.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지역의 HP 이미지 프린팅 그룹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및 서비스 사업부 부사장 피에르 멀레스(Pierre Mirlesse)는 "MPS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친환경'의 가치는 출력 비용 및 생산성 개선과 함께 기업 고객들이 HP

MPS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면서 "성장일로에 있는 MPS시장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실행능력'과 '비전 완성도'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 HP가 갖는 경쟁 우위"라고 밝혔다.

엡손, 컬러 프린터 2종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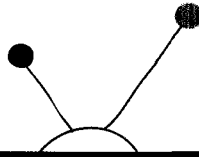


한국엡손(대표 쿠로다 타카시)은 컬러 프린터 'B-510DN'과 'B-310N'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B-510DN/B-310N'의 가장 큰 특징은 비즈니스 현장에 적합하게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춘 것이다. 장당 출력 비용이 기존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1/3 수준으로 흑백은 장당 약 11원, 컬러는 장당

약 34원 (대용량 카트리지 기준)에 불과하다. 흑백 레이저 프린터의 출력보다도 경제적이며 또한 인쇄 레이아웃 기능과 기본 장착된 양면 인쇄 장치를 통해 용지 절약이 가능하다. 'B-510DN/B-310N'은 넓어진 프린터 헤드와 총 360개의 노즐이 있어 고속모드에서 컬러/흑백 모두 37ppm의 빠른 인쇄가 가능할 뿐 아니라 500매의 전면 트레이와 150매의 후면 트레이가 기본으로 지원되어 최대 650매까지 대용량의 용지 공급이 가능하고 잉크는 최대 8천매의 검정 초대용량 잉크 카트리지와 최대 7천매의 컬러 대용량 카트리지로 많은 작업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서지한 한국엡손 부장은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소호 및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많은 양의 문서와 이미지도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최적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출력비용을 대폭 낮춘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를 지원해 사용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HP, 스마트 아카데미 페스티벌 실시



한국 HP(대표 스티븐 길)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10년 신학기를 맞아

‘HP스마트 아카데미 페스티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행사 제품인 HP 잉크젯 프린터9종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HP 미니노트북 및 아이폰, 포토북 상품권과 같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행사제품은 △HP 데스크젯 D5560 △HP 데스크젯 잉크 어드밴티지 K109a, K209a △HP 포토스마트 C4680, C4790, B109a △HP 포토스마트 플러스 B209a △HP포토스마트 프리미엄 C309g △HP 포토스마트 프리미엄 팩스 C309a등 HP 잉크젯 프린터 및 복합기 9종이다.

‘매달 최신 넷북을 노려라!’ 프로모션은 4월까지 매달 추첨을 통해 한 달에 한 명씩 총 3대의 HP 미니노트북을, 매주 매 주 아이폰이 팡팡! 이벤트를 통해 1주일에 한 명씩 총 12대의 아이폰을 제공한다. 이 프로모션은 한국HP 행사 홈페이지(www.hp.co.kr/touch)로 참여 가능하다.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한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김상현 전무는 “201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기 프로모션인 만큼 HP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 미니노트북과 아이폰과 같은 최신 인기 IT기기를 경품으로 마련했다”고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유명 모델을 내세우지 않던 방침을 깨고 텔런트 박한별씨를 HP신학기 캠페인의 모델로 채용한 것에 대해 “얼짱 출신으로 포토제닉한 박한별씨와 사진출력에 용이한 HP포토스마트 제품군과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 박한별씨를 모델로 채용했고 상큼 발랄한 이미지가 HP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지제록스프린터스, 닥터X 오피스 어택 행사



후지제록스프린터스(대표 황유천)는 지난 1월 20일 직장인 응원 프로젝트 ‘닥터X 오피스 어택’ 행사를 가졌다. 5번째 행사를 진행한 오피스 어택은 IT업계의 대표적 체험 마케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오피스 어택을 위해 후지제록스프린터스의 브랜드 아이콘 닥터X는 회사를 깜짝 방문해 모노 레이저 복합기 Phaser3100MFP와 케이크, 음료수 등을 선물로 준비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즐거운 간식 시간도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벤트를 통해 전달된 모노 레이저 복합기 Phaser 3100MFP는 토너 소비량을 40%까지 줄이는 토너 세이프 모드를 탑재한 고성능 복합기로 20ppm의 고속 인쇄와 13초의 빠른 첫 페이지 출력, 20cpm의 복사 속도로 동급 최강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후지제록스프린터스 마케팅팀 백민정 차장은 “닥터X 오피스 어택을 통해 새해를 맞은 직장인들을 응원하고, 회사에 필요한 고성능 복합기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며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는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오피스 어택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판뉴스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5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출판산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한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말 문광부가 전자출판산업 정책 연구를 위해 발족한 TFT의 전문가들과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출판의 종주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록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지만 최근 전자출판, 디지털출판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유수 국가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전자·디지털 출판은 모든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시되며 최근 포털사이트인 아마존, 애플사, 구글 등 3대 구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전자출판 전용 단말기 '킨들'과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지털 도서관 등으로 소비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 교수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화학, 철강 산업의 뒤를 이어 인쇄 및 출판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3위 산업에 오른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쇄 출판 산업은 종이, 나무의 소비가 크고 숲을 파괴시키는 반 환경적인 산업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전자출판은 종이, 나무 등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출판업 10% 세액 감면 추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월 28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도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출판업'을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따라 '출판업'이 기존 '제조업'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 변경(2008년 2월 1일부터)됨에 따라, '제조업' 분류 시 주어졌던 소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출협은 '출판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10인 이상 100인 미만

의 출판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1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문화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은 지난 2008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출협, 납본 45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납본 45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월 18일 10시 금호아트홀 3층 문호홀에서 개최됐다.

납본보상금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한 선배 출판인들의 노고를 기리고, 납본을 통해 국가 기록 유산 보존에 이바지하고 있는 출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한 이번 기념행사는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납본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념행사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납본 관련 홍보 영상물 상영을 비롯해 출협의 납본대행 업무 경과보고에 이어, 1965년부터 현재까지 출협에 납본해 온 47개 출판사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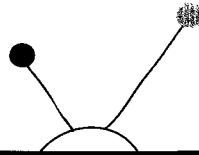
한편 출협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대행 업무를 시작한 1965년 2월 18일을 기념하여 매년 2월 18일을 '납본의 날'로 제정해 그 뜻을 기려나갈 계획이다.

한국출판인회의, 해외 출판인 초청 세미나 개최



(사)한국출판인회의(회장 한철희)는 지난 2월 9일 서교호텔 2층 하모니룸에서 '동아시아 국제 도서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중국, 대만 아시아 3국의 국제도서전 주요관계자가 초청돼 해당 국제도서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들 도서전에 효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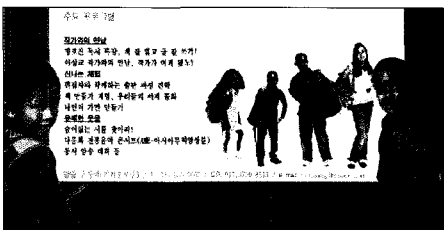
한철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저작권과 도서수출 상담의 주축이 되는 국제도서전 참가를 보다 전략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문화지수와 출판의 흐름과 수출입 경향 등을 파악하고 해당 국제도서전의 실체를 파악해 보다 진정성 있고 성과를 도출하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출판인회의의 해외유명출판인 초청 세미나는 세계적 출판기업의 성공 노하우와 국제간 출판교역과 우리 출판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홍보하여 출판물 교역 및 저작권의 해외 수출 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다.

유통서비스 지식장터 이용 설명회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지난 1월 24일 경기도 파주출판도시에 위치한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유통서비스 지식장터 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14개 기관의 1억 건이 넘는 디지털콘텐츠를 구축하고 이를 전자책 관련 기업들이 전자책 등의 사업에 활용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2년 동안 4~5차례의 관련기업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지식장터에 등록된 디지털콘텐츠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 각각의 기관과 별도 계약과정 없이 ‘지식장터’에 원스톱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장터의 콘텐츠는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 등 방대한 콘텐츠 소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획에 따라 다양한 전자책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자책 콘텐츠를 대량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주북시티 다문화 책 만들기 캠프



만들기 캠프’를 개최했다. 초등학교 4~6학년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40명 등 총 60명의 어린이들을 초청, 무료로 진행한 이번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2월 1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다문화 책

캠프에 대해 출판도시문화재단측은 해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독서교육과 다문화 체험을 결합한 캠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서는 출판의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출판과정 체험을 비롯하여 다문화 동화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종이재단과 함께 하는 나만의 가면 만들기 시간, 아시아뮤직앙상블과 함께하는 다문화 전통악기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이번 캠프는 웅진그룹의 지원으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올해는 몽골,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등 총 7개국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60명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만남과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인큐브테크, 전자책 관련 세미나 개최



(주)인큐브테크(대표이사 이원경)는 지난 2월 3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50여개 국내 주요 출판사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전자책 콘텐츠 수급 및 디지털자산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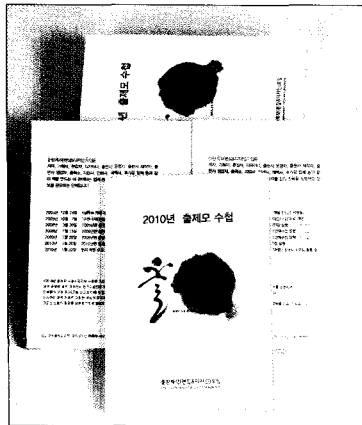
인큐브테크는 이번 세미나에서 자체 개발 서비스모델인 콘텐츠뱅크와 콘텐츠호텔을 소개했다. 콘텐츠 뱅크는 출판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는 콘텐츠를 디지털화해 관리해주는 서비스이며, 콘텐츠호텔은 콘텐츠 뱅크에 보관된 콘텐츠를 출판사가 전자책 사업 및 부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인큐브테크는 전자책사업을 위해 국내 주요 출판사와 대형 서점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한국이퍼브, 위즈덤하우스 등과 계

약을 맺고 국제 전자책 표준 포맷인 'e퍼브' 표준에 맞춘 전자책 콘텐츠를 생산중이다.

이원경 인큐브테크 대표는 “전자책은 단순히 종이책을 대체하는 좁은 시장이 아니라 거대하게 열리고 있는 전혀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시장”이라며 “뱅크와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본력과 마케팅 역량이 취약한 출판사들도 전자책 시장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제모, 2010년판 출제모 수첩 발간



다음카페 출제모에서 최근 2010년판 출제모 수첩을 발간했다.

2006년 이래 세 번째로 발간된 출제모 수첩은 국반판(105mm×148mm) 크기에 256 페이지로 만들었으며, 내용은 모임 소개, 다이어리, 출판제작상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출제모 수첩은 인쇄 관련 업체의 협찬을 받아(종이: 무림페이퍼, CTP판: 성도GL, 인쇄: 아트포아트, 제책: 정성문화사)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출제모(<http://daum.net/bookmakepeople>)는 저자,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출판사 운영자/제작자/영업자, 출력소 지업사, 인쇄사, 제책사 등과 같이 책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다.

제지뉴스

삼화페이퍼갤러리, 14Day전

삼화페이퍼갤러리(대표 김성호)는 오는 3월말까지 14Day(Part1, Valentine's Day, Part2, White Day) 전시회를 개최한다.



벨크라프트, 주신포장과 함께 기획한 14Day전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와 3월 14일 화이트 데이에서 착안하여 초콜릿, 사탕 등 일반인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선물용 패키지와 선물 상자, 카드 등을 고급스럽고 화사한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시품 중 하나인 선물 상자도 기념품 형식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는 아티티 구호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한 문의는 삼화페이퍼갤러리에 하면 된다.

한국제지, 하이퍼CC 캐릭터 네이밍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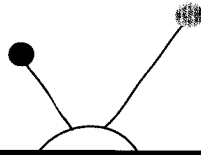


한국제지(대표 전원중)는 최근 복사지 하이퍼CC 캐릭터 탄생 기념 이벤트를 실시했다.

하이퍼CC 캐릭터의 이름을 선정하고자 진행된 온라인 이벤트는 응모자가 한국제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내부공모를 통해 가려진 후보인 파피, CC랑, 카피미 중 하이퍼CC 캐릭터에 가장 어울리는 이름 하나를 골라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벤트 결과 파피(PAPY)가 응모자 1만1683명 중 약 53%의 선호도를 보여

하이퍼 캐릭터 네임으로 최종 선정됐다.

캐릭터 네임 '파피(PAPY)'는 종이의 기원이 된 식물 파피루스(papyrus)에서 착안한 것이며 대표 브랜드로서 하이퍼CC 이미지와 캐릭터 '파피'의 연상작용을 통해 대한민국 1등 복사지임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제지는 고객의 친근감을 불러 일으키는 캐릭터 '파피'를 통해 향후 하이퍼CC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림, 2009 우수협력업체 시상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2월 8일 서울 신사동 본사 사옥 리프레시룸에서 2009년도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커버스토리'와 '대진목재산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커버스토리는 기존 블레이드 대비 내구성이 양호한 코팅블레이드를 제공, 무림페이퍼의 파지량 감소에 기여했고 대진목재산업은 목재팔레트를 연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해 준 점이 선정의 사유로 알려졌다. 김인중 사장은 무림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부탁하며 감사패와 함께 부상으로 상품권을 수여했다.

무림, 2010년 임원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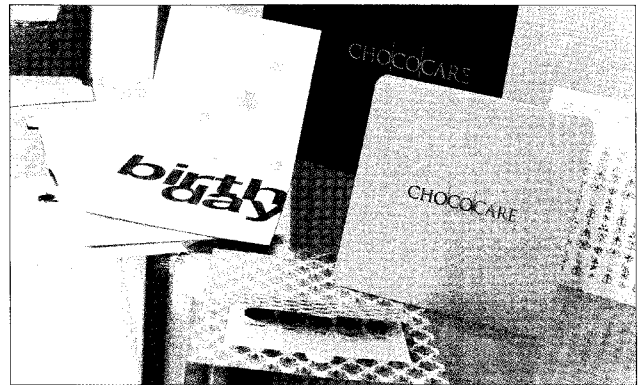


무림은 지난 1월 22일~23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수원 LIG인재니움에서 2010년 임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등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무림페이퍼, 무림SP, 무림P&P의 임원 25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혁을 위한 임원진 내부의 현상파악 및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

행됐다. 또한 직원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1등 리더로서의 임파워먼트 리더십을 강화하는 다양한 외부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무림은 직원들의 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3월 중으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원특수지, FSC 인증펄프 사용한 친환경종이 출시



(주)삼원특수지(대표이사 이상욱)는 최근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산림인증인 FSC인증을 획득한 친환경종이 '켄도(kendo)'와 '인바이런먼트(ispir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원특수지의 '켄도(kendo)'는 55% FSC 펄프와 40% FSC 재생 펄프, 5% 식물섬유로 제조된 100% 친환경종이로 품질의 우수성과 환경친화성을 인정받아 EU위원회로부터 친환경 우수제품에 부여하는 에코라벨을 획득했다.

'켄도(kendo)'는 재생종이 고유의 특징인 자연스러운 색감과 미세한 티끌의 조화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기존 재생종이가 가지고 있던 지나친 티끌 배합을 적절히 조절하여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이미지와 색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지에서 표지 및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제품 구성과 제작물을 장기간 변색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할 수는 중성처리 등 다양한 장점도 지니고 있다.

친환경종이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는 최근 100% FSC 재생펄프 제품과 대나무, 사탕수수 등 비목재 섬유를 사용한 신제품을 새로이 선보이며 브랜드의 환경친화성을 한층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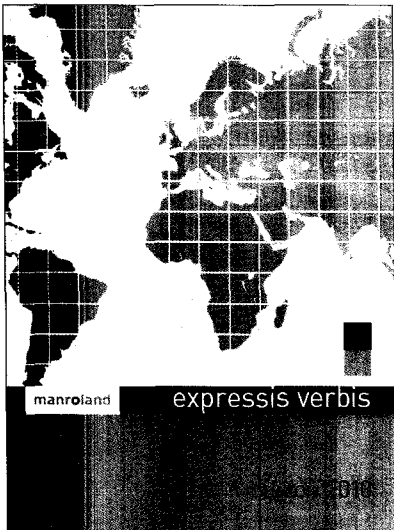
특히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까지도 환경을 고려하여 풍력, 수력 등에서 생산

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그린-e, 그린-seal 등 청정에너지 사용 제품에 부여하는 다양한 인증까지 획득했다.

삼원특수지의 관계자는 “지구촌 화두인 친환경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여면서 기업, 관공서, 디자이너 및 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종이에 대한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국내 최다인 약 70여종에 이르는 FSC 제품을 취급함과 동시에 재생종이, 무염소표백 종이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친환경 종이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 친환경종이 대표기업으로의 역할 수행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뉴스

만로랜드, expressis verbis 2010년판 발행



만로랜드 본사는 최근 그래픽 아트 산업잡지 expressis verbis 2010년판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미래의 인쇄시장 어떻게 급격하게 변모할 지, 또한 실제 인쇄물은 어떠한 모습이 될 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담겨있으며, 어떠한 시장, 어떠한

컨셉,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등장할지 알려주고 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통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인쇄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객관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알고 싶어하는 인쇄인들에게 더욱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신문윤전, 상업윤전, 상업인쇄, 포장인쇄, 디지털인쇄 시장에 대한 흥미롭고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만로랜드 관계자는 “만로랜드는 인쇄 산업의 동향과 깊이 있는 정보를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xpressis verbis 2010년판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스트 UV프린터 작업화 버즈 칼리파 개관식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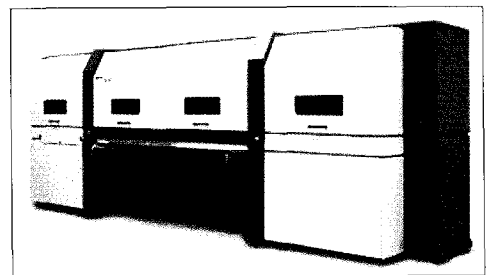
마이크로큐닉스는 지난 1월 4일 세계 최고층인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 빌딩 개관식에 사용된 열기구풍선에 DURST UV Printer를 이용한 초상화가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영국의 Cameron Balloons이며 Durst의 Rho 351장비를 사용하여 출력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큐닉스는 열기구에 인쇄를 하기 위해선 뜨거운 열에 대한 내구성과 열기구 소재인 폴리우레탄이나 실리콘을 코팅한 나일론 섬유에 인쇄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수적이어서 Durst Rho351 장비로 열기구에 인쇄된 초상화를 통해 Durst의 품질과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Rho351R은 UV를 전용 양면 프린터로 최대 350cm까지 출력이 가능하며 최대 1200dpi의 시각 해상도를 지닌 장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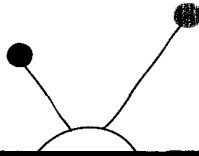
더스트 Rho1000, 엔젤 어워드 수상

마이크로큐닉스는 해마다 이미지 리포트 매거진에서 그 해에 출시된 가장 혁신적



이고 영향력 있는 장비 10개를 뽑아 소개를 하는 엔젤 어워드 2009 시상식에서 Rho1000은 Rho UV 시리즈 중 최고의 장비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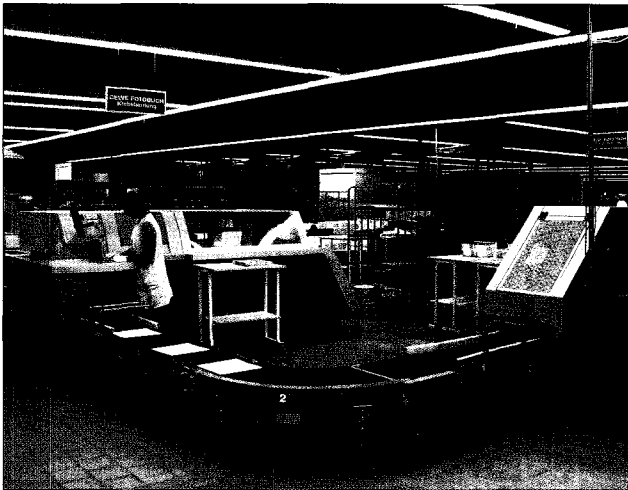
작년 Fespa에서 첫 선을 보인 Rho1000은 연속 UV 평판 프



린터로 현존 생산 시스템을 모두 결합하였고 시간당 최대 600 보드로 인쇄할 수 있고 또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마이크로큐닉스는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과 품질은 더스트사의 독자적인 Quadro Array Printhead 기술과 현존하는 생산 시스템(오프셋, 스크린 인쇄)을 결합한 효과적인 워크플로가 더욱 발전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소개했다.

유럽 최대 디지털 인쇄사 유로바인드 1300 PUR 라인 가동



유럽 최대의 디지털 인쇄사인 CeWe Color는 인터넷 사진 서비스에서 유럽 시장의 4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남부 독일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CEWE 포토북의 유행 덕분에 대규모 제책 작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포토북 제작을 위해 북 블록의 페이지 두께와 규격에서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다.

Martin Heiming 사장은 “개인화된 포토 제품을 대규모 생산하는데 전문적이며 온라인과 소매점 파트너들 모두를 통해 판매되는 이러한 부가가치 상품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성수기에 CeWe Color는 3교대로 1주일에 약 5만권의 포토북을 생산하는데 각각의 제품은 규격, 블록 두께 및 페이지 수에 있어 다른 고객화 맞춤형으로 작업된 것들이다.

공장장은 “PUR 접착제를 이용하는 하이델베르크 사의 유로바인드 1300 PUR 무선철기의 노즐 시스템은 뛰어나지만

동시에 중요한 요소는 유로바인드 1300 PUR 무선철기, 냉각 부분, 유로트림 1000 3방재단기로 구성된 생산 라인의 조율된 전체 시스템의 컨셉”이라고 말했다. 한번에 분리되었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기계 중심점에서 이 모든 공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매일 유로바인드 1300 PUR은 평균 60~70회 설정되며 성수기에는 100번까지 증가한다.

Michael Buhl 공장장은 “기계의 자동 프리셋팅으로 설정은 지금도 10분 안에 가능하지만 하이델베르크사와 협력, 준비시간을 더욱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로바인드 1300 PUR의 접착제 적용과 책등 준비는 대형 무선철과 같은 수준의 기술력이 높은 기술로 이 무선철기는 CeWe Color의 고유 요구에 맞춰져 커버 피더, 블록 급지 스테이션 및 PUR 노즐이 개량되기도 했다.

Flyeralarm과 Druckhaus Mainfranken사 스피드마스터 XL 145 가동



독일 뷔르츠부르크에 위치한 온라인 포털인 Flyeralarm 과 그 생산 공장인 Druckhaus Mainfranken사는 하이델베르크로부터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이 장착된 2대의 스피드마스터 XL 145-4 인쇄기를 도입, 가동에 들어가 회사의 기대 이상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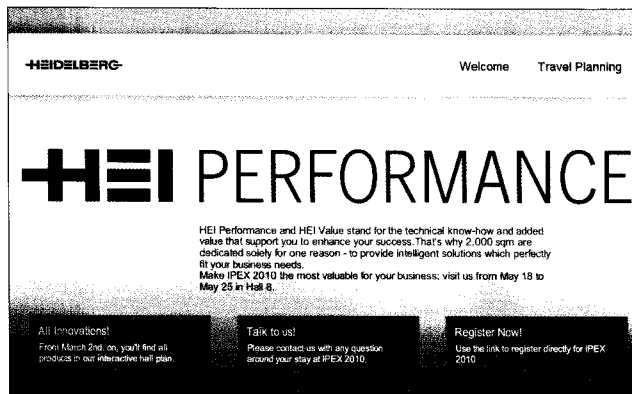
Christoph Schleunung 사장은 새 인쇄기의 높은 자동화 수준과 가용성을 크게 평가하며 “수년간 하이델베르크의 XL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아왔다. 하이델베르크의 기술은 드루파에서 초대형 인쇄까지 넓혔다고 했을 때 기뻐하며 우리는 매 작업조가 30가지 작업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 수와 그

납기를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생산과 최적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다"고 전했다.

인쇄 기술 책임자 Jan Barthel씨는 "생산의 관점에서 프리넥트 인프레스 콘트롤(Prinect Inpress Control) 시스템이 핵심이며 그것은 핀맞춤과 잉킹 과정을 조정해 작업자의 작업량을 크게 줄인다. 손지를 절약하는 것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절을 해 주어 전체 인쇄 과정에서 일관된 잉킹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하이텔베르그가 지난 드루파2008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초대형 규격의 스피드마스터 XL 145와 XL 162 시리즈는 독일과 그 외 국가에 30여대 판매됐다.

하이텔베르그, IPEX 2010 전용 웹사이트 오픈



하이텔베르그는 최근 IPEX 2010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인 www.ipex.heidelberg.com를 개설 오픈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IPEX 2010에 드루파 2008과 이어지는 동일한 콘셉트로 전시를 진행할 것이며 8번 홀에서 HEI Performance(고성능)과 HEI Value(고부가가치)의 모토아래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설된 웹사이트는 하이텔베르그 전시장의 홀 디자인과 전시될 각종 혁신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IPEX 2010의 참관을 위한 각종 편의 정보를 제공하며 IPEX 2010 무료 참관을 위해 등록 할 수 있는 링크, IPEX의 전시장이 있는 도시, 버밍햄에 대한 관광 정보와 도시 지도 등 다양한 링크를 제공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IPEX 2010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VMware 본사 칼 에센바흐 수석부사장 방한 기자 간담회 개최



VMware 본사에서 전세계 영업 및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칼 에센바흐(Carl Eschenbach) 수석부사장이 지난 2월 18일 방한, 서울 강남구 파크 하얏트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국내 주요 고객사 및 파트너 방문을 위해 방한한 칼 에센바흐 수석부사장은 그 동안의 다양한 고객 성공 사례를 토대로 올 한해 국내 가상화 시장에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VMware의 가상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로드맵인 'Customer Journey to Virtualization and Beyond Journey'를 토대로 한 엔터프라이즈 가상화를 통해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수 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칼 에센바흐 VMware부사장의 'VMware 가상화 성공 사례 및 2010년 비전 발표'에 이은 질의 응답과 폐회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PAGE2010 성황리에 폐막

일본인쇄기술협회(회장 칸 아사노)가 주최한 PAGE2010이 지난 2월 3일부터 3일간 도쿄 선샤인시티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협회측에 따르면 총관람객은 7만2470명으로 전년의 7만436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출전사는 132개사에 517부스 규모로 전년의 157개사, 628개 부스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PAGE2010은 지난 1988년 인쇄, 미디어 전시회로 시작해 최근에는 IT솔루션과 크로스미디어를 아우르는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신문사, 출판사, 디자인회사를 비롯하여, IT업계에서 주로 참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